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 932

부리감 영 대관장은 그의 딸들을 중심으로 절제회를 조직하였다. 이것이 후에 청년 상향회가 되었다. "청년 상향회 백주년"을 특집으로 했다.

성도의빛 9  
1969



# 영감의 메시지

십이사도 보조 보이드 케이. 팩커

얼마전에 모 종교지의 편집인이 연차 대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바 대회의 "정신"을 느껴보 고자 대륙을 횡단하여 온 것입니다. 개회 전에 우리는 이 태버나클 건물의 단 앞으로 내려 왔습니다. 태버나

클에는 입주의 여지도 없이 사람들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는 단 바로 옆에 수 수한 옷차림을 한 어떤 중년 신사를 찾아 내고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해 달 라고 했습니다. 보니 그는 서부에서 온 개종자였고 내 편집인이 속했던 바로 그 교회의 신자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감독단의 보좌로 일을 맡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접견중에 오고 갔던 대화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이 교회에 회원이 되신지는 얼마나 됩니까?" "한 팔년 되지요" "선교사가 선생님 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바로 교회에 들어 오셨나요?" "아-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까지 여러 주 걸렸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서둘러 하는 건 질색인걸요" 그는 미 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편집인이 물었습니다. "교회의 대관장 되 시는 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그분이 어느 성경 시대에 살았던 다른 많은 선지자와 똑 같은 하나님의 예언자이 심을 압니다." "교회에서 하시는 봉사에 보수는 받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는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돈은 아니구 요. 저는 십일조의 원리가 우리만의 특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편집인은 접견 에서 만족한 이야기를 듣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서 그는 다시 돌아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저, 왜 선생님은 십일조를 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나는 그 훌륭한 형제의 얼굴로 심각함이 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츰 고조되는 감정의 열도가 그의 눈에 타올랐으나 다음 한마디 대답은 참으로 차분 하게 울렸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9년 9월 1일  
(통권 제 50호)

발행인: 서 현 보  
편집인: 홍 무 광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 제 5 권 제 9 호 순 서 1969년 9 월 호

권두언: 이 두 개를 함께 데이비드 오. 맥케이 .....	1
선지자의 영혼 매리온 디. 행크스 .....	2
■ 특집: 청년 상향회 백주년 ■	
1869~1969년 간의 청년 상향회 봉사 .....	5
청년 상향회 백주년 엘레나 노엘스 .....	6
약을 현명하게 사용하자 제이. 루이스 슈릭커 .....	11
청소년년편: 여러분이 빛나게 한다 엘레인 케논 .....	14
● 어린이 성도의 벗 ●	
긴 밤 아이리스 신더가드 .....	15
사라다 인형 .....	17
새 집 솔빅 펄슨 러셀 .....	18
개척자 여인 케네스 더블유. 고드푸리 .....	19
오늘날 교회내의 여성의 위치 벨 에스. 스페포드 .....	22
관리 감독단 페이지: 문벌이란? .....	24
주일학교: 공과 계획 .....	25
상향회: 상향회로 가자 .....	27
선교부장 메시지: 교사가 되라 서 현보 .....	29
지방부장 메시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배 영천 .....	30
내외소식 .....	31

### 표지 설명

시간: 1869년 11월 28일 일요일 저녁.

장소: 라이온 하우스 응접실.

행사: 부리감 영 대관장이 그의 딸들을 중심하여 절제회를 조직하였고, 이것이 후에 청년 상호 향상회가 되었다.

표지에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그림에서 화가 데일 킬본은 영 대관장이 그의 딸들에게 "너희들은 의복이나 식사나 언행에서 절제를 하고... 좋지 못하고 가치없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라"고 권유하는 장면을 잡았다.

화가는 영 대관장의 열 명의 딸 (그들은 스스로를 "열명의 큰 아이들"이라고 즐겨 불렀다)들의 얼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현재 유타주 역사 학회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을 참고하였다.

# 이 두개를 함께

대판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 성경 말씀중에 “주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 하니라.”(고전 11 : 11) 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것 없이 서로를 위해 설정한 목표를 단독으로 성취하기란 용이하지 않습니다. 비록 여인의 삶이 선하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자의 세계라던가 남자의 세계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세계란 사실상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남녀는 같은 취미와 꿈과 소망을 가지며 하나의 성공이나 실패는 곧 다른 하나의 성공이며 실패가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며 함께 일하고 함께 성공을 쟁취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자만의 세계도 없고 남자만의 세계란 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최선을 경주하여 원하는 목표를 쟁취하겠다는 오직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인의 세계 그것은 곧 남자의 세계요 또한 끝이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주는 분명히 그 성을 정하셨듯이 성격과 취향 그리고 활동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일하고 여자가 최선의 노력을 여인으로서 바칠때 최고의 아름다움과 지고의 삶의 조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 형편은 여인이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하고 가장 선한 것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세계로 부터 여인을 몰아 냈거나 추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애의 물결이 넘쳐 흐르는 삶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여인은, 그러므로, 순결하고 슬기로우야 합니다. 그 흐름을 담배나 극약이나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괴롭히는 분절한 균으로 더럽히는 여인은 스스로의 성에 불성실한 것이며, 건강과 영원한 달음질의 적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슬기롭고 따뜻한 모성애입니다.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생성케 하는 덕의 근본을 우리는 가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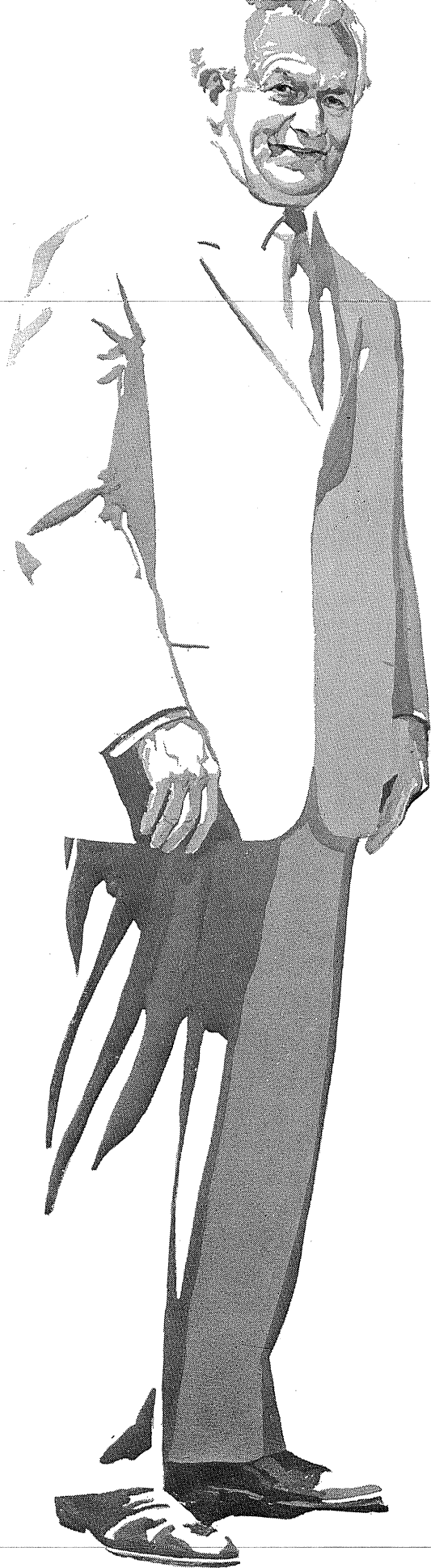
모성은 인간의 삶을 선과 악 그 어느 하나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서운 힘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이란 아직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어린아이의 가슴에 새겨지는 최초의 영상입니다. 맨 먼저 아기의 안전감을 깨우치게 하는 것도 어머니의 보살핌이요, 어머니의 입맞춤으로 아기는 사랑을 배우고 친절과 온유를 배우며 처음으로 이 세상이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라나는 아기 앞에 영웅이 되고 또 교사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소년의 야망이 움트고 남자다운 성격을 갖게 되며 외면으로는 어머니가 심어준 온유함이나 부드러운 덕성에서 돌아선듯 보여지지만 세상에 태어난 첫 해에 엄마가 새겨준 지워지지 않는 영상은 그 속에 남아서 사고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며 저마다 독특한 향기를 내뿜는 꽃처럼 선명한 하나의 세계를 지키게 합니다.

조그만 어린 애기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삶의 모습을 형성하는 줄이 있으며 점점 어린애가 자라면서 그 줄은 밧줄이 되고 마침내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그것은 습관의 쇄사슬이 되어 버립니다. 이 쇄사슬의 최초의 줄을 어린 아이에게 던져 주는 곳은 가정이며, 놀이터, 학교, 이웃한 대화의 세계 그리고 사회입니다.

삶의 법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가 어미와 아버지로 자식에게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삶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을 신앙과 의로움 안에서 훈련시켜야 하는 의무를 안겨 줍니다. 이들은 참으로 “회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들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고 이를 게을리 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교성 68 : 25)

이상적인 인생이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남자와 여자의 참된 동반입니다.

○



# 선지자의 영혼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

십이사도 보조

이 기사는 1968년 3월 19일 부리감 영 대학에서 맥케이 대관장님에게 모범적인 인간상을 드리면서 행크스 형제의 축사에서 발췌한 것임.  
이 달로 맥케이 대관장님은 96회 탄신을 맞는다.

● 위대한 사람이란 “바위에 새겨진 말씀과 물 속에 잠긴 책의 말씀을 읽고 만물을 비치시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



는 극히 소수의 사람 에 불과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오 는 동안 그는 볼 수 있는 눈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쳐버 리고 만 음악을 들을 수 있던 사람입니다.” 위의 말씀은 다 른 사람이 아닌 맥케이 대관장님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 니다.

선명한 선견지명, 예리한 지혜, 폭 넓은 지식, 깊고 깊 은 슬기로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야말로 위인 의 귀감이라 하겠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시인도 철학자도 또 예언자도 담겨져 있으며 오랜 세월을 두고 쌓인 이상과 힘겨운 작업에서 얻은 사상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의 너 그러운 마음씨와 고매한 인품과 관대한 성품은 단련되고 성숙하고 또 승화하여 그의 사랑과 배움으로 더불어 지혜 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한 말이 대관장님께 참으로 어울립니다. “나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마침내 나의 것이 되도록 주노라.”

과연 맥케이 대관장님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무엇을 마음 애뜻하게 생각 하고 계신지? 그가 보여 주신 위대한 가르침을 돌이켜 보실까요? 여기 본인이 주목한 몇가지를 적어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그리스도 같은 성품 ……사랑 안에서의 헌신……참되고 진실된 삶, 청결하고 고매한 삶——고결한 영혼……절제와 지식으로 가득찬 마음……

아름답고 고무적인 것의 다듬어진 모습……현명한 부부 관계, 복된 결혼, 가정의 유대, 가족 기도 ……거룩한 가정……여인과 어머니로의 여인에 대한 존경……본보기로의 남성……부모와 유산에 대한 존경……

예절 바름, 단정함, 온유함……힘든 수고……자기를 돌보 지 않는 봉사……참된 애국심, 조국에의 사랑……모든 회원은 다 선교사……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을 가르치는……

참으로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상을 삶에 훌륭하게 적용하 여 뼈에 살을 입히고 그 위에 삶의 영을 불어 넣지 않으셨 는가!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는 제가 경 험한 사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침, 교회 연차대회를 준비하고자 모든 형제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신전에 나왔을 때 맥케이 대관장님은 그들을 조용하게 칭찬하시면서 몇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그분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 었던 것처럼 여겨 졌으나 사실 또 아무도 생각지 않은 것 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말씀하셨으며 나는 아직도 그 분을 쳐다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느낌을 기

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모두다 지금껏 기억하고 있 습니다만,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이해한 대로 풀어서 써야 겠습니다.)“우리는 오늘 아침, 몸을 깨끗이 씻고 청결한 마 포를 두르고 정신을 가다듬고 영으로 무장한채 주님의 가 르치심을 받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매일을 이와같은 태도로 살아가야 하 지 않을까요?

그의 사려 깊은 마음과 예의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아 주 최근에 그분의 사무실에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 가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그분은 평상시처럼 책 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몸이 편하지 않으셨고 또 원기 도 없으셨습니다. 이와같은 상태의 다른 사람이라면 방문 객을 맞으려 몸을 일으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겠 습니다만 나는 나를 맞으려고있는 힘을 다하여 일어나서려 고 애쓰시는 맥케이 대관장님을 잡아 앉혀드리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나는 눈물을 머금었습니 다.

내가 역원의 임무를 맡은 첫번 해에 초등 협회 대회에서 이야기를 부탁받았던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초등 협회 대 회를 갖기로 정한 날에 내뻘내 내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 각하고 그곳에 참석하여 개회사겸 이야기를 하기로 그곳의 제의를 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같은 시간에 예 비 대회전으로 총관리 형제들과 함께 신전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전해 듣고는 참으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대회는 사실 평상시보다 좀 빨리 준비된 것이었습니 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자매들도 이미 프로그램이 인쇄 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므로 예정 변경이 난처하다고 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부재중이었으므로 몇몇 훌 륭하신 형제님들께 의견을 물었더니 한결같이 내가 신전으 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 협회 관계 역원과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나는 참으로 슬픈 마음이 되어 신전으 로 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이 돌아오신 다음 나는 그분께 내가 처 한 궁색한 입장을 설명해 드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즉각 내가 약속한 그 모임에 나가야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매들에게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된 날 신전에서 맥케이 대관장님은 모임이 시작되자 바로 일어 나서서 초등 협회와 선약이 있는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광고하신 다음 신전에서의 모임을, 나, 지극 히 작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나 때문에 모두 다음으로 미 루어 그토록 미미한 나를 후에 참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롭니다만 내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솔직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상황 하에서 그와 같은 너그러움과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접견이 때로는 심문이나 문초같은 인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정직한 피접견인은 접견인의 태도나 질문 내용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우울해 질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맥케이 대관장님이 접견하실 때의 그 따뜻한 모습—모두를 집중시키고—눈, 귀, 그리고 관심으로 가득찬 위대한 지도자의 마음—은 한없이 다정스럽습니다. 나는 대관장님과 가졌던 접견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때처럼 내 문제를 사심없이 털어 놓고 정말 말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의논해 본 일이 없으며 그것은 그분의 영적인 자세 그리고 온유함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생활의 내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재론을 피하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답해드린 접견 질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질문의 모습에 주의해 보십시오)

“형제는 형제의 가정에 완전히 충실합니까?” “가정 이외의 곳에 합당치 않은 연고로 연결된 일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형제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감히 누가 이토록 온유하고 인자하고 예의 바른 질문에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대관장님의 은화함과 관대함과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람을 축복하신 영광을 입증하는 두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성탄절 바로 전에 월남 여행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나는 맥케이 대관장님과 간단한 접견을 갖고 가시덤불 논밭에 있는 군인들에게 가져갈 메시지를 전달받고자 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나를 머물게 하시면서 그때의 사명에 대한 설명과 계획을 물으시고는 그 기간이 가족과 함께 해야 할 나의 사생활을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들으시고는 그러나 염려나 동정은 한치도 의면으로 비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이토록 훌륭한 기회를 얻게 되다니!”

이야기가 끝나자 큰 손을 내밀어 나의 무릎을 가볍게 치시고는 참으로 그의 고결한 생애와 영광스러운 영광을 한데 집약시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져든 저들에게 내가 마음으로 나누는 이 사랑을, 이 사랑의 나눔을 전해주소!”

그분이 뜻하시는 바는 언어로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그분의 깊은 속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이었으며 그것이 나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고도 남았으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을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내면에 위치한 사랑의 나눔을 놓고 그것을 전달하는 힘, 또 그것을 느끼는 능력 이런 것을 구사함으로써 이를 삶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맥케이 대관장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해 들어갔던 저명한 노무관계 지도자와 그의 부인과 두 딸에게서 대관장님에 대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접견은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웃음, 훌륭한 유모어, 때로는 조금 가벼운듯한 대화, 때로는 심각한 이야기, 이렇게 한 반시간쯤이 지났습니다.

모두 즐거웠습니다. 특별한 격식이나 걸치레 같은 것도 없었고 그저 소박하고 따뜻하고 관대하고 우의를 느끼게 하는, 표현되고 또 표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이 방을 나가시자 그 손님과 가족은 하나 같이 눈물을 머금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왕과 통치자를 만나는 일도 있었고 세상 여러 곳의 지도자를 접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분같은 분을 일찌기 뵈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다시는 이런 분을 배출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후 그분은 시대 대학 교수의 모임에서 같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면서 이토록 위대한 지도자를 가까운 곳에 모시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옛날 선지자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것이 맥케이 대관장님께도 적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며 계명을 따르며 바른 판단으로 다스려……”(모사이야 29 : 43)

“또한 저들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 어느 누구보다도 우러러 존경하였으니……”(모사이야 29 : 40)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신앙이라 그가 이를 영광으로 마음에 간직하였으니……선한 일로 처리하였고 악을 막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이러한 일을 이루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진대 보다 지옥의 권세가 영원토록 흔들릴 것이요 악마가 결단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리라.”(엘 48 : 16~17) ○

1869—1969간의

# 아름다운 청년 상향회 봉사

● 1869년 11월 28일, 주일의 모든 순서를 끝낸 뜻깊은 저녁에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그 가족 중에 여자를 모두 라이온 저택으로 한 자리에 모으신 다음 “절약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년 상호 향상회의 처음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청년 상향회 백주년 창립일을 맞아 돌아보건데 한 가족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된 이 기구는 오대양 육대주와 작은 섬 위의 수천 수만 조직 기구를 갖추게 되었고 사실상 모든 교회 회원의 가정마다 지부를 둔 셈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첫 시간에 이미 영감에 의하여 설정된 목적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나 곧 복음의 정신을 넓히고 가정을 바로 이끌고 개개인 간증을 굳건히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회원은 자주 통계로 나타나는 발전의 모습과 그것이 의미하는 힘으로 인하여 커다란 감회를 맛보게 됩니다. 물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상황을 그린 것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입니다. 사람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으며 최종적으로 통계에 보고되는 숫자는 개인 하나하나가 무상으로 희생한 봉사와 근로의 열매인 것입니다.

청년 상호 향상회의 역원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다른 직책에 부름을 받은 회원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만—여러분의 직책이야말로 여러분의 시간을 부분적으로만 요구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주 그 주일의 공과나 그밖의 임무를 끝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그리고 일주면 일곱날을, 여러분이 회원을 만나거나 혹은 그 가족을 상향회가 아닌 다른 교회 집회에서 만날때, 때로는 시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임무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청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저녁 상향회 공과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향회는 감춰진 삶의 놀라운 의미를 가르쳐 주는 이른바 삶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삶의 높은 이념을 지니고 사는 젊은 여자를 우리 속에서 분별해 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무리 속에서나 이들은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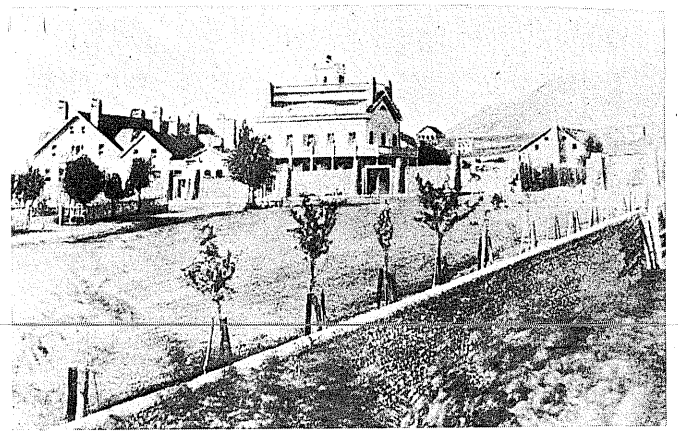
교회는 개인개인에게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기회와 시험에 대비하여—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미적으로—개인을 보다 완전하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청년 상향회 조직의 목적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백여년 전에 주님께서 브리감 영 대관장께 전해 주신 영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지난 백년 동안 상향회의 역원과 회원에게 다같이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상향회에 속한 청년 회원 여러분!—여러분 중에는 십대 소녀도 있고 나이가 더 많은 소녀도 있겠지요—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소망과 내일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의로운 소망과 요구를 계속하여 추구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지상 생활은 하나의 시련의 기간이며, 전세의 회의에서 우리가 용납한 위대한 계획에 의하여 자유 의지의 원리에 좇아 신앙과 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부딪혀 옵니다만 죽님은 늘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알고 계신 최상의 대답을 들려 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현재의 여러분의 어려움은 맨 처음 상향회를 시작했을 때의 역원이 가졌던 어려움이나 백년 동안 수시로 역원이 가졌던 어려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상향회의 역원으로 교사로 혹은 회원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위에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우리의 동반자로 혹은 함께 일하는 자로 기쁘게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

대관장단

David O. McKay  
Hugh B. Brown  
Weldon Tanner  
Joseph Fielding Smith  
Harpe B. Jesson  
Kim Jensen



# 청녀 상향회 백주년

엘레나 노엘스    임프르브먼트 이라 편집보

● 최신 유행의 옷치장, 머리 치장, 화장에 열을 쏟으며 1969년을 사는 여인들은 오늘날 세상에 이른바 청녀 상향회라고 알려진 조직이 처음 이 세상에 조직되었을 때 도 여인들의 생활 모습이 같았다고 하면 아마 놀랄 것이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새로운 유행의 침담을 걷는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한 영원한 요구를 지닌 여자이며 특히 십대와 이십대가 더하다. 성도가 솔트 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직후 수년동안은 집을 짓는다든가 마을을 건설하는 일보다도 여성의 검소한 복장 문제를 더욱 심각하고 철저하게 다루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자하는 여인의 천품으로 인하여 더욱 곤란 상태로 발전하였고 드디어는 개인 개인의 치장에 더욱 열을 쏟게 되었다.

1869년은 성도들에게 있어 감격의 해라 하겠으니, 바로 이해 5월에 대륙을 가로 지르는 철로의 마지막 연결이 끝난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은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었니. 먼 해협으로 부터의 이민단도 뜨겁고 먼지나는 평원을 비교적 쉽게 여행하게 되었고 건축, 농장의 재료와 기타 상품을 더 싼 값으로 또 빨리 현지로 연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가져오는 반면 귀부인의 유행물을 실어 왔으니! 이 지역의 여인들이 부푼 치마, 주름치마, 짧은 뒷머리, 털 목도리 등의 새로운 유행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본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 어떠한 조처를 취해야만 했고—그의 가족이 먼저 모범을 보여 저들을 선도해야 했다!

그리하여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1869년 11월 28일 라이온 저택 앞의 기도의 종을 울려 여자 가족을 모두 한 자리에 모으셨다. 저녁 기도를 끝마친 뒤 대관장님은 그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좌 : 1930년대의 청녀 스테이크. 우상:부리감 영 대관장의 저택. 좌측은 청녀 상향회가 조직된 라이온 하우스. 중앙 이 비 하이브 하우스. 1860년대에 찍은 사진에서, 우하 : 1910년경 오락 활동을 즐기는 소녀들.

“모든 이스라엘이 나의 가족을 주시하고 있으며 나의 아내와 딸이 보여주는 모습을 거울삼아 보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먼저 나의 가족을 중심으로 질서의 체계와 검약, 근면, 사랑을 고취시키는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호화스런 옷차림을 배제해야 되겠다고 먹고 말하는 데까지도 자중해야 할 줄 안다. 자매들이 모두 사



치한 옷치장을 배격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며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훌륭한 모범이 되어 보겠다는 결심을 할 때가 올줄 안다. 우리의 자매가 어리석은 세상의 유행의 조류에서 서로 아우성을 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대……

“나는 우리 시온의 젊은 딸로 새로운 모임을 조직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가져왔오……나는 우리의 딸이 스스로 복음의 지식을 터득하기를 간절히 바라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 모임을 조직하려는 것이며 나는 나의 가족이 그 선두에서 위대한 이 사업을 이끌어 주기 바라는 것이오……

“나는 여기 모인 식구 모두가 이제 조직하려는 절제 위원회에 가입해 주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이 입는 의복과 식탁과 경거 망동의 일체를 절제하겠노라는 선서를 해주기 바라오. 선하지 않거나 아름답지 않으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모든 것을 배격하고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오직 여러분을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생활을

공문화한 서식이나 프로그램이 없었던 관계로 초기의 조직은 모두 개별적인 자치 단체였으나 각 모임은 브리감 영 대관장이 그 딸들에게 전한 내용의 골자를 모임의 취지로 하였다. 결국 중요한 프로그램 및 정책 요강은 단체 별로 정하였다.

1875년 청남 상호 향사회가 조직되자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절제 위원회의 이름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바꾸도록 지시하여 청녀 귀부인 상호 향사회로 했다가 다시 1934년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녀 상호 향사회로 개칭하였고 본문에서 앞으로 편의상 청녀 향사회로 사용하고자 한다.

기구가 차차 비대하고 성장함에 따라 각종 정책 및 활동의 통일화를 위한 중앙기구의 조직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1878년에 첫 스테이크 임원회가 조직되었고 다른 스테이크에 임원회가 속속 들어섰다. 총 본부격인 중앙임원회가 조직된 것은 1890년과 1891년 사이였다.

모임이나 단체에 있어서 그 성공의 영광은대개 이를 지



1896년에 청녀 회장, 보좌 및 역원으로 일하던 자매들 모습

해주기 바라오!”

이날 저녁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시와 문장에 능하며 교회의 초기여성 조직체인 상호 부조회의 활동적인 회원 엘리자 알.스노우가 있었다. 영 대관장님은 스노우 자매에게 새로운 “청녀 협동 절제 위원회”(곧 청녀 절제 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음) 조직을 도울 것을 요청하셨다. 그때의 역원을 살펴보면 엘라 영 앰퍼를 회장으로 에밀리영 클퍼슨, 지나 영 윌리엄스, 마리아 영 도우갈, 캐로린 영, 도라 영, 웨베 영 등이 보좌로 임명되었다.

새로운 조직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 나갔으며 비슷한 모임이 쏠트레이크 전역을 휩쓸었으며 대개는 엘리자 알스노우의 지시로 조직된 것이었다. 같은 해에 옥든, 푸로보, 로간, 브리감시, 바운티폴의 제 마을과 다른 지역에도 이 모임은 확대되었다.



청녀 상호회가 주최한 활동은 황록 무도회, 봄의합창 제전, 로드쇼 등이 있다.

휘하는 자에게로 돌아가며 청녀 상호 향사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지난 100년 동안 총 회장을 역임한 사람의 수는 여섯 명, 이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지도력의 소유자요 폭이 넓은 지도자였다.

1880년 총회장단이 부름을 받아 회장에 엘미나 세파드 테일러, 보좌에 마가렛 와이. 테일러(존 테일러 대관장의 부인)와 말타 혼 텅기였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딸인 마리아 영 도우갈은 처음 절제 위원회에 참석했던 자로서 후에 마가렛 테일러를 대신하여 그 일을 맡았다.

이들 여인은 때로는 말을 타고 때로는 마차를 타고 수백 수천 마일을 여행하면서 조직을 새로 만들고 또는 위원회의 일을 감독하였다. 1904년 테일러 자매가 작고한 후 1905년 4월에 테일러 자매의 보좌였던 말타 혼 텅기 자매가 총회장이 되었고 루스 메이 폭스와 매 테일러 니스트롬(엘미

나 테일러의 딸) 자매가 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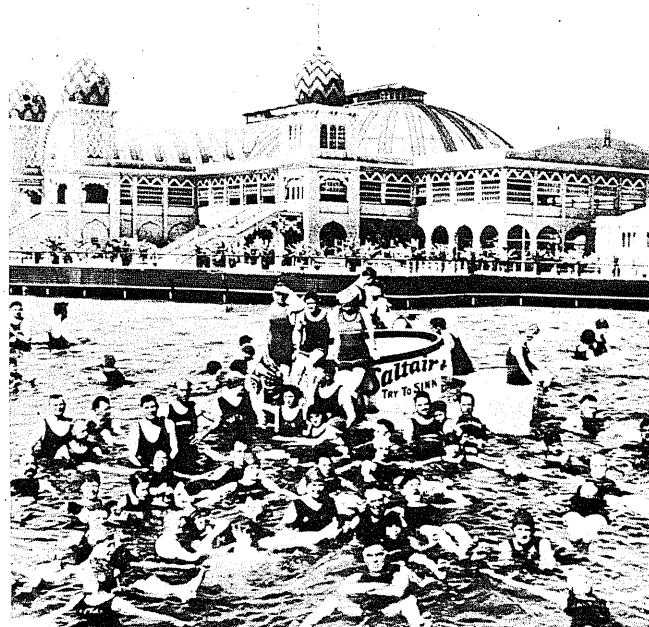
22살에 총 회장단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텅기 자매는 청년 상향회 회장단에 49년간이나 머물러 봉사하였으며 그 중 25년간은 보좌로서 나머지 24년간은 회장으로 봉사하였고 1929년에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같은 해 3월 28일, 루드 메이 폭스 자매가 회장에 임명되었고 루시 그랜트 캐논 자매와 크라리샤 에이. 비즐리 자매가 보좌로 뽑혔다. 캐논 자매가 회장의 자리를 이었으며 그것이 1937년 10월이었다. 11년이나 청년 상향회 회장으로 일한 그는 보좌를 셋이나 가졌었다. 헬렌 스펜서 윌리엄스, 버나 라이트 고드라드, 루시 테일러 앤더슨 자매 등이 그의 보좌였다.

1948년 4월에는 버타 에스. 리더가 총회장이 되었고 에밀리 에치. 베넷과 라루 씨. 롱든 자매가 보좌로 선택되었다. 이들은 1961년 9월 30일에 해임되었고 후로렌스 에스. 제콕슨, 마가렛 알. 잭슨, 도로디 피. 홀트 자매가 새로히 회장단을 맡게 되었다.

상호 상향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청소년의 관심을 끈 주요 원인은 상향회의 프로그램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요와 요구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 상향회의 프로그램은 변경되었던 것이다.

처음 절제 위원회는 각층의 연령의 여인을 일률적으로 다루었으나 청년반과 노년반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조직 체제로 바꾸었고 그 후로도 연령별로 여러번 반과 조직의 체제를 변경시켰다. 예를 들면 꼴벌반은 1913년 십대 소녀의 여름 활동을 위하여 마련되었고 14~18세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결국 1920년대에 와서 꼴벌반은 12~13세의 소녀가 참석하는 반으로 조직의 모습을 정비했다. 곧 이어 나이 많은 꼴벌반 생도(16~17세)는 주니어반을 이루었고 그 이상의 연령층은 이삭 줍기반으로 참

유명한 휴양지이며 상향회 활동 중심지인 대 솔트레이크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지난 100년동안 청년 상향회를 이끌어 온 자매 여섯 분. 엘미나 세파트 테일러, 말타 혼 텅기, 루스 메이 폭스,

가하도록 했다.

수년간에 걸쳐 이러한 세분 조직의 형태가 재정리 되었고 현재는 12~13세의 소녀가 참석하는 꼴벌반, 14~15세가 참석하는 장미반, 16~17세가 참석하는 월계반, 그리고 18세 이상은 이삭 줍기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성인은 신혼부부반에 참석하던가 상호 연구반에 참석 연구반에서는 반원 개개인이 전체가 관심을 갖는 주제를 택하여 공부한다.

총 임원회에 활동 전문가, 작가, 기타 전문가를 두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하면서부터 새로운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으며 상향회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12세에서 25세 까지의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녀 프로그램이 그 좋은 본보기의 하나가 된다. 자기 딸에게 모임의 취지를 전하는 절제 위원회 초기의 모임에서 브리감 영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어린 딸들이 진리의 산 간증을 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딸이 스스로 복음의 지식을 터득하기 바랍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대부분의 여자 회원이 절제 위원회에 가담하였고 그후 이 모임은 상향회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직장을 찾아서 타향으로 떠난 소녀는 물론 상향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몇몇 스테이크에서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갖고 곧 가출 소녀의 뒤를 쫓아 교회와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조치하기에 이르렀으며, 후에 이러한 활동을 활발하게 가져오던 솔트레이크 주재 그레나이트 스테이크의 프로그램을 교회가 전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레나이트 스테이크의 소녀 프로그램 초대 회장이었던 펄 그린 자매는 그스테이크의 관심과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1940년에 한 부인이 그레나이트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 일 보좌였던 피. 드루 클라크 형제에게 왜 교회는 소년에게만 그토록 열중하고 소녀는 무시해 버리느냐는 질문을 던짐으로서 그레나이트 스테이크에 소녀 프로그램을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클라크 부대장님은 이 문제를 깊이 숙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레나이트 스테이크에 소년이 더 참석하고 있는지 소녀가 더 참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를 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참석하는 소



루시 그랜트 캐논, 버타 에스. 리더, 후로렌스 에스. 제곱슨

년의 수가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보조조직 역원이 소집되었고 더 많은 소녀를 성찬식과 주일학교, 상향회에 참석하게 하며 십일조를 바치고 순결의 생활을 하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는 상을 주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의 결과는 현저하게 들어났다. 1941년 6월에서 1943년 12월 사이에 소녀의 참석수는 주일학교가 47%에서 65%로, 성찬식에서는 20%에서 41%로, 십일조를 내는 수는 32%에서 72%,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수는 86%에서 91%로 증가하였다.

그레나이트 스테이크 및 기타 스테이크에서 소녀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게 되자 1946년에는 소녀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 감독단에서 관리하여 전 교회에 적용시키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1950년 4월 연차대회에서 본 프로그램이 청년 상향회로 넘어 갔다. 18년간의 소녀 프로그램이 가져온 결과를 숫자로 살펴보면 그 성장의 모습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1950년에는 50,425명이 등록된 것에 반하여 1968년에는 138,787명이 등록되었고, 1950년에 180 스테이크만 본 활동에 직접 참가하였으나 1968년에는 488개 스테이크가 참여하였고, 1950년에는 소녀의 47% 만이 성찬식에 참석하였으나 1968년에는 56%가 성찬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상호 향상회의 출석율은 1950년에 59%였고 1968년에는 64%가 되었다.

상향회 초기에 있어서는 총 본부 역원과 각 지역 역원간의 상호 연락 및 교통은 어려운 일 중의 어려운 일이었다. 효과적인 지시 사항 및 교재 전달 방법도 시급히 요구되었다. 상향회 총 회장인 엘미라 테일러와 브리잠 영의 딸이며 뛰어난 작가였던 수사 영 게이트가 거의 동시에 교회의 청년 여자를 위한 잡지를 만들자고 하는 제의에 함께 움직여 진것 같다.

부군을 따라 하와이에서 선교사업을 하고 있던 게이트 자매가 요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 청년 상호 향상회의 잡지에 대한 구상을 서신으로 보고해 드렸다. 테일러 자매와 대관장단간의 오랜 서신 교환 끝에 드디어 청년 잡지의 창간을 보게 되었다. 1889년 10월에 발행된 창간호부터 말일성도 여인을 위한 그리고 여인에 의한 이야기, 시 등이 기

타 상호 향상회 역원에게 전달되는 지시 사항과 함께 잡지에 실렸다.

공과 제시는 별도로 팜프렛의 형태로 준비하였으나 잡지가 성공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1899년 11월부터는 공과도 잡지에 실리게 되었다. 점차로 상향회의 전 과정이 성숙해지면서 공과도 각 반별로 따로 출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결국 청년 잡지에는 전체의 관심거리가 되는 기사 및 간단한 보고, 각 역원과 교사에게 전하는 지시 사항만을 다루게 되었다.

1929년 6월 연차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청년 잡지와 당시 청남 상향회의 잡지인 임프루브먼트 이라지가 특별한 의식을 갖고 쏘트 레이크의 태버나클에서 “결혼”하고 말았다. 그 첫번 합병호가 출판된 것은 1929년 11월이었다.

청년 잡지가 계속된 40년간에 이 잡지의 창시자인 수사 영 게이트의 딸 리 디. 윗소를 비롯하여 메이 부스 탈메지(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의 부인과 그 딸 엘시 탈메지 브랜드리) 앤. 엠. 캐논, 매리 이. 코넬리(후에 상호 부조회지의 편집인이 됨) 케이트, 토마스, 루드 메이 폭스 마바 씨. 죠셉슨 등의 저명한 작가 및 편집인이 발탁 이용되었다.

개척 시대 이래로 음악, 무용, 연극 기타 문화활동은 말일성도의 문화 생활의 근간이 되었었고 상향회가 그 중임을 맡아 위와 같은 활동을 발전 전개시키는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1890년의 총회에서 청남 상향회와 최초로 합동 모임을 가진 것을 기점으로 청년 상향회와 청남 상향회가 총회장단, 스테이크, 와드 등의 규모로 합동 활동을 갖더니 마침내는 공과도 합동으로 갖게 되었다.

상향회에서 개발된 활동이 세계적인 것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도 허다하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 로드 쇼를 들 수 있다. 이는 1924년 그레나이트 스테이크의 비행사반 프로그램이었던 것이 지금은 거의 모든 상향회의 특별 순서로 되어 있다. 몇몇 와드가 상연하던 짧고 흥미진진한 로드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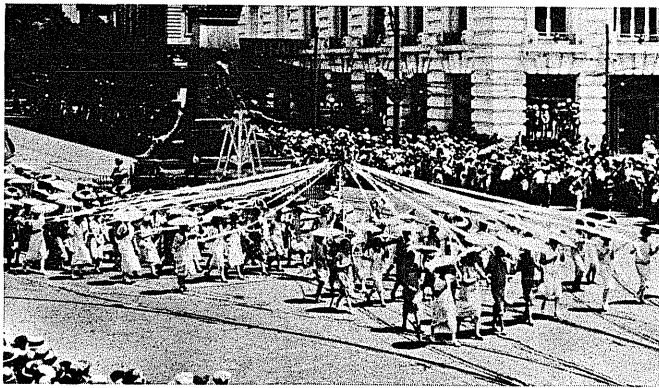
쏘트 레이크 시에서 개최되는 6월 상향회 대회에서의 무용 축제



이미 오스트라리아와 남태평양 지역에서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인기를 모으고 있다. 스테이크와 와드간의 거리가 먼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청소년 대회나 스테이크 야유회에 대비하여 연극을 준비하기도 한다.

모든 교회가 참석하는 대 무도회 역시 상향회와는 메어 놓을 수 없는 순서이다. 첫번 대 무도회는 쏘트 레이크에서 서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대 쏘트 레이크 호반에서 열렸었다. 그 호반의 면적과 시설이 대 규모의 무도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무도회장을 6,000명을 수용하는 유타 대학 극장으로 바꾸었고 이틀 동안을 계속하면서 하루에 40,000명이 참가하도록 계획하였다.

청녀 상향회와 말로 시대와 현대 청년의 요구에 영합하면서 놀라운 발전을 쌓아 왔다. 그러나 브리감 영 대관장이 제창하신 근본 이념은 아직도 근본 활력을 이루고 있다. 의복에 있어서의 절제도 교회의 젊은 여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903년 상향회가 겨우 34살이 되었을 때 유럽을 여행하던 교회 역사 편찬가 앤드루 켄슨의 부인은 이렇게 보고해 왔다.



쏘트 레이크 시가를 퍼레이드로 누비고 있는 청녀상향회 회원들.

“.....내가 여행한 여섯 나라에서 나는 쏘트 레이크 시내에서 보았던 그와 같이 찬란하고 사치스런 옷차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길을 가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여자가 가슴과 뒤통이 파진 옷이나 소매가 없는 옷을 입

은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생각컨대 우리 주변의 젊은 여자들이 갖는 사치스런 옷차림의 요구가 무서운 악이 되고 있지 않나 여겨 집니다.”

그것이 1969년의 것이거나 1869년 아니면 1903년이라 해서 다를 바가 없다. 청녀 상향회의 회원과 역원은 늘 시대의 유행에 관심을 둔다. 건 스커트가 유행하던 시대는 지났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염려하시던 넓게 퍼지는 옷 모습도 오늘날의 십대에게는 한낱 우수한 옛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린 소녀에게 단정한 옷차림을 가르치며 상향회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어린 딸들의 진리의 간증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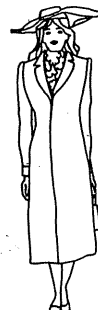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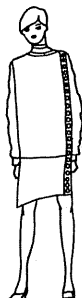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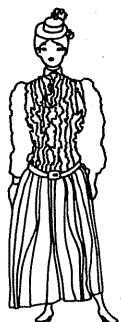
다음 청녀 상향회의 백년은 과연 무엇을 가져 올 것인가? 이 물음에 선뜻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지난 백년간의 교훈을 잘 배운다면 상향회는 시대 및 교회와 더불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청녀 상향회의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성질의 새로운 제안이 공과 및 활동에서 강조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스테이크에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는 프로그램이 전 교회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영원한 것이며 100년 전 브리감 영 대관장이 그 딸들에게 전한 권고의 말씀은 발전 성장하는 상향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1930년, 교회 창립 100주년에 청녀 상향회 회장 루드 메이 후스 자매가 지은 노래 “나가자”는 상향회의 사랑받는 주제가이기도 하다. 이 노래에 나오는 몇몇 내용이 100년 동안 상향회의 명맥을 이어온 그 정신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 또 100년을 이어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저들이 놓은 산석 위에  
왕께 드리는 궁전을 지으리라.

반짝이는 복도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을 감사하며  
우린 찬송을 높이리니  
이는 세상의 제물이나  
부가 아니오,  
사랑과 기쁨과 건강의  
영원한 축복이라.

오 고귀한 청년된 축복이여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



# 약은

## 현명하게

### 사용하자

제이. 루이스 슈리커 박사

● 오늘날 사람들은 수없는 유혹의 제물이 되고 있으며 그의 몸을 여러가지로 모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악의 일부는 공공연하여 쉽게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나 더러는 아주 은밀하며 그중에도 약은 아주 은밀한 것에 속한다.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텔레비 기타 통신에 의한 발표에 의하면 마리주아나라든가 LSD 같은 약이 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날로 더욱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

그 위험의 도에 있어서는 위에 언급한 약과 동등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일반 가정에서 쉽게 발견되며 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흥분제 같은 약만큼은 광고되지 않은 약이 있다. 이러한 약 가운데는 현명하게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나 그 양을 초과한다면 지 잘못 사용할 때는 크게 해가 되기도 한다.

교회와 성약 89편에 수록된 게시는 1835년 2월에 주어졌으며 많은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다. 비단 술, 담배, 뜨거운 음료 등에 관한 권고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항구적인 복지 대책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 특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살펴보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몸에 유익한 모든 약재류는 인간의 신체와 활력과 이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니라,

“철마다 나는 모든 약재와 철마다 나는 모든 과일, 이 모든 것을 신중함과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느니라”(빌 4:17) (밑줄 친 부분은 후에 첨가되었음)

이상의 권고에 언급된 약재의 사용은 사실 우리들에게 아주 유용한 것이다. 이 계시가 주어졌을 때에는 약재류를 약으로 널리 사용했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미 언급한 위험한 약의 성분이나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안다. 다만 덜 알려진 약의 위험과 또 그것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했으면 한다.

수면제 : 우리는 평범한 하루 일과를 이행하는 데에도 불안 근심 걱정 압박감 등을 느끼며 참으로 이러한 것들로 분주하게 맴도는 세상을 살고 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근심 걱정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미해결인 채로 머리 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주 불면증, 불빛, 피로, 피곤한 꿈 같은 것의 방해로 잠을 그르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대개는 약품을 사용하여 잠시라도 잠을 자겠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면제의 거의 모두가 중독을 가져오며 마침

내는 습관성 불편증에 걸리게 되어 수면제가 없이는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 결국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어쩔 수 없이 중독자가 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기의 불안과 문제는 더욱 더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게 되고 더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완전히 독립적인 위치를 상실 당한채 약의 노예가 되고 만다.

“네 그렇지만 저는 괜찮아요, 무척 조심하거든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 이러한 약물 사용의 경시는 약의 중독에 벌써 말려들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약에 의존한채 자신이 중독되었음을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약에 빠져들어가고 만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약은 각각 그 약의 특별한 용도와 성분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약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크게 덕을 보기도 한다. 약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사용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의외로 무서운 위험에 빠지게 되며 일상상의 문제 거리가 된다.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은 다시는 자기의 주인이 아니며 파괴적인 습관의 노예가 되고 만다.

진정제 : 진정제류는 신약에 속하며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만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현재 격증하는 진정제 사용자로 인하여 머리를 앓고 있으며 진정제의 사용은 놀라운 속도로 번져 나가고 있다. 수면제의 경우처럼 진정제도 극히 조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실상 이 진정제는 합당하게 사용하면 크게 도움이 되며 여러 경우에 진정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크게 해를 입을 사람이 진정제를 사용함으로써 크게 덕을 보는 수가 있다.

진정제는 현실의 여건 자체를 변경시키는 구실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 나가는 동안 매일 매일 복잡다단한 사건과 중압감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은 한다고 보아야겠다. 따라서 진정제를 사용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문 의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진정제의 장기 복용은 상당한 위험을 가져 오므로 특히 이를 경계해야 한다.

“정력제” 어떤 사람은 인공 “정력제의 마력”에 아주 도취하여 살기도 하며 이러한 사람의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진정제는 어느 정도 약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만든 것이기는 하다. 진정제는 신체 내부의 회복능력을 약화시키며 사실은 안정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대체로 수면제를 사용할 때 진정제를 같이 쓰게 되는데 이는 수면제의 사용으로 인한 불쾌감이라던가 피로를 씻으려는 의도에서 이다. 진정제는 신체 내의 심리적인 구조에 작용하여 긴장과 염려를 제거한다. 그러므로 진정제 류의 약물 사용에는 엄격한 사용 방법이 따르며 사용자는 이 법을 역시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진정제의 오용이나 남용은 절대로 금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살 빠지는 약”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비만증이다. 비만 증세는 대개 과식이나 게으름으로 인한 운동 부족에서 비롯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물론 본 토론 사항에서는 특수 비만증이나 불균형의 신체 조건으로 인한 비만증의 경우는 제외하겠다. 비만증은 대개 심각한 질병의 사전 증세가 되기도 하는데 심장 장애, 소화 불량, 변비, 동맥 경화증, 원기 감퇴 등이 그것이다. 비대한 사람은 비능률화 되어가며 신체 활동도 둔해진다. 그리하여 원기는 줄어들어 그밖의 활동 능력도 자연 감퇴된다.

비만증을 제거하려면 대단한 의지력과 결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몸에 파괴적인 증상이 찾아 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온갖 시도를 경주해야 한다. 의지력이라든가 결의가 약으로 얻어 지지는 않는다. 살 빠지는 약을 먹는다는 것은 의지력과 결의로 자기 신체의 복지를 구하겠다는 의욕을 포기한 태도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

물론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의사의 지시로 일정 기간 동안 특히 회복기에 살빠지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환자가 자제력을 잃는다던지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지는 않는다.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졌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육신은 가장 거룩한 성전인 것이다. 인간이 전혀 어쩔 수 없는 질병이나 고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흔히 사람은 알게 모르게 병을 스스로 불러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야 말로 우리가 받은 최상의 은사인 우리 육신을 해치는 무리인 것이다.

약을 오용하거나 과용하는 것은 자멸의 행위이며 파괴와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하려면 약의 사용에 있어서는 의사의 슬기로운 지시를 따라야겠다.

많은 사람, 특히 많은 여인이 다시 한번 다음의 계시의 말씀을 상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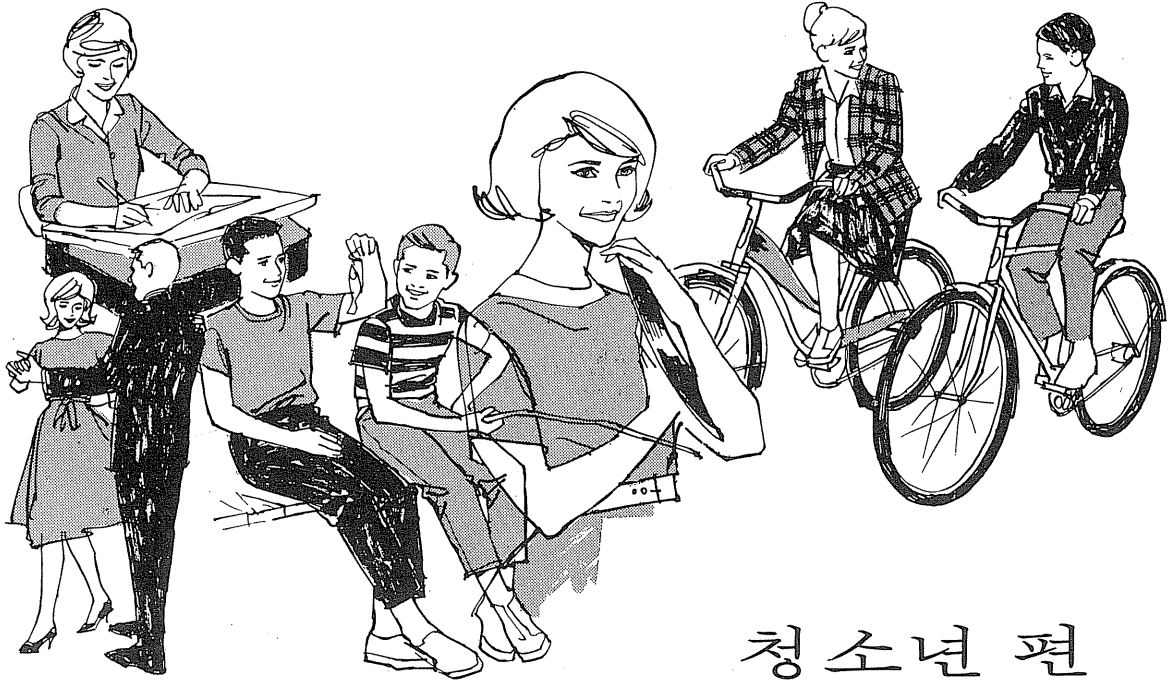
“참으로 음식이나 의복이나 집이나 곡간이나 과수원이나 채소밭이나 포도원 그 어느 것이나 땅에서 나오는 풀이나 좋은 것은,

“참으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참으로 육체를 강건케하며 사람에게 힘을 복돋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 졌느니라.

“또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 졌으니, 적당히 취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취하지 말지니라.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 (교성 59 : 17-21) ○



## 청소년 편

# 최상의 삶

솔트 레이크 태버나클에서 엠마 레이 리스 맥케이 자매님을 위한 모임이 있을 동안 메리온 디. 행크스 장로가 하신 말씀을 요약한 것

● 가장 아름다운 꿈과 행복으로 그리는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주부가 되고 가정의 심장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의 최상의 이루움이며 고귀한 꿈의 달성이다. 이러한 것들이 쉽사리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거나 방문을 지연할 때 여러분은 용감하게 길을 개척하며 이러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최상의 삶을 시도하려 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보람있고 아름답고 무엇인가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삶을 갖고자 노력하려는지? 그리고 언젠가는 있을 날을 위하여 준비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려는지?

여러분의 가장 높은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만일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다면 모두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한 소망을 가장 합당하게 또 가장 아름답게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 구체 방안은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라**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않으나에 관계없이 스스로에게 충실하라. 정신력을 길러라. 현재의 능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작업을 매일 시키도록 하라.

**타인에게 충실하라** 타인이란 우리와 가까운 남,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영역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삶에 충실하라** 삶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을 존경하거나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께 충실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높고 거룩한 그의 뜻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따라 기쁨과 보상을 받는다. ○

# 여러분이 빛나게 한다

엘레인 케논

바로 여러분이  
놀이가,  
연극이,  
청소년 대회가,  
축제가,  
교회 야외 활동이,  
봉사 모임이,  
노년의 모임이,  
반 활동이,  
복지 사업 임명이,  
빛나도록 한다.

바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렸다.  
여러분이 다 있어야 한다.

사람이 많아야 더 재미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여러분이 참석하여 꼭 여러분이 더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더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사교의 지혜와 개인의 임무를 배  
웠다. 여러분은 사물에 흥미를 가지며 관심과 열  
의를 가졌고 약동하는 삶을 가졌다. 여러분은 손  
님으로서 호스트나 개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일  
어서야 하는 책임을 인식할 줄 안다. 그러한 재  
질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끈다. 그렇다고 그저  
모습만 들어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참석하  
여 모두에 참여해야 한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므로 바로 여러분 모두를 빛나게 한다.







# 개척자 여인

케네스 더블유. 고드푸리

● 사랑스러운 모두를 남겨둔채 제대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집을 떠난 개척자 여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흔들리는 마차 위에 유랑의 가족을 위한 가정을 건설하려 노력했습니다.

안락한 모두를 뉴욕에, 오하이오에, 미쥬리에 혹은 일리노이에 던져두고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다하여 부딪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은 모세의 뒤를 쫓아야 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고 리하이로 따라 광야로 떠났던 여자들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했을 겁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재료에 밀크란 거의 없고 또 양념도 없으면서” 저들은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 쓰고 남은 우유나 크림을 마차에 얹어 두면 마차가 흔들리는데 따라 빠터가 되는 과정도 알아 보았습니다. 이스트를 사용하는 재주도 잘 익혔으며 천막이 설치되고 불을 피워 늦쇠 스토브를 가열시킨 다음에는 잘 부푼 반죽으로 빵을 구워냈고 때로는 앞서간 사람들이 덜어 놓고 간 스토브와 화덕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매리 엠. 부트 간은 일곱 자녀를 데리고 평원을 횡단했습니다. 그는 보통 쓰이는 이스트를 만들어 된 반죽에 넣어 섞은 다음 이를 작은 네모로 빚어서 햇빛이 쬐이지 않는 그늘에 말려두곤 했습니다. 이를 햇빛에 말리지 않는 이유는 힘들여 기른 산균을 죽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새로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해야 할 때에는 말린 네모 조각 하나를 넣으면 되도록 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리는 출발에 앞서 반죽을 꺼내어 마차에 싣고 저녁에 도착하면 새로 빵을 구울 만큼 부풀어 오른 반죽을 손질하여 늘 신선한 저녁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언제나 모자랐습니다. 1846년 6월 20일의 호세아 스타웃은 일기에 나부를 떠난 2개월여 후의 처절한 생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기아의 곤경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내는 우리의 저녁을, 아니 차라리 최후의 만찬이라 해야 옳을 것을 준비하려 갔다. 음식이라야 종자로 쓰려던 콩 얼만큼과 베이콘 조각을 넣고 끓인 국이다. 갖고 있던 밀가루도 바닥까지 털어서 내놓았다. 식탁은 평상시보다 호화롭고 넉넉해 보였고 낯선 사람이 보면 넉넉한 집 음식으로 알았으리라.”

그날 저녁 이 가족과 더불어 음식을 든 두 사람은 그 음식이 스타웃 가족의 마지막 음식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후로 그 가족은 삶은 콩의 양마저 줄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들소의 서식처에 포장 마차가 도착하자 각 가족은 사양한 들소 고기를 포를 뜨고 진한 소금물에 삶은 고기를 긴 끈처럼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른 고기를 모닥 불에 구어 다음 날에는 햇빛에 내어 놓아 말렸습니다.

이렇게 곤경의 여러 주일을 지내는 동안 포장 마차로 함께 여행하던 여인들은 고난을 함께 싸우는 자로의 두터운 유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레라나 열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분만하는 여인은 힘을 몰아 함께 거들었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의 기록에 의하면 나부를 떠난 첫날 밤에 태어난 아기가 아홉이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의 별 환경과 조건에서 아기를 분만해야만 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닥쳤습니다. 스노우 자매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더러는 천막에서 더러는 포장 마차에서, 어떤 때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떤 때는 눈 보라가 불 때 아기를 낳았다. 나는 또 어떤 자매가 다 쓸어져 가는 오두막 땅 바닥에서 비가 줄줄 새는 천장을 쳐다보며 아기를 낳아야 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 옆에는 마음씨 착한 자매가 접시를 들고 빗물을 받아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영접하고 산모를 빗물에서 보호했다는 거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인들은 마치 남자들처럼 목표한 바를 달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철통같이 단결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그 결의가 대단하여 루이사 반스프렛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남자가 기도 모임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하면 우리 나름으로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자매 끼리 합당한 장소에서 쉬며 남자끼리 기도를 끝내고 각각 불일을 보도록 할 것, 남자가 여자를 통제하려 할 때는 저들에게 주의 환기시키고 남녀의 동등함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알린다.”

어린 아이들을 잠재우고 나서는 자주 여인들대로 삼삼 오오 메를 지어 신선하고 조용한 밤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루이사는 “플랫 강 근처가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강변을 거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고 때로 이들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에 목도 감았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벅차고 끝없이 너른 광야에서 홀로 느끼는 이러한 감회로 하여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개는 곤경의 날이었으나 이들 가련한 여인이 필요로 하는 이상의 흥분이 찾아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라첼 리가 그의 여행 마지막에 가진 경험도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그가 포장 마차를 따라 길을 걸으면서 잠시 시원한 바다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 별안간 돌풍이 불어와 그네의 스카트 자락을 마차 바퀴에 휘감아 버렸습니다. 역사적인 작가 와니타 부측은 라첼 리보다도 더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네의 스카트가 완전히 바퀴에 휘말리자 그네는 마차 바퀴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몸은 이미 중심을 빼앗겼고 두 손으로는 바퀴의 살을, 그리고 발로는 두개를 떠밀어 몸은 바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차는 멎었지만 라첼의 몸은 거의 곤두박질하듯 매달려졌습니다. 곧 달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라첼을 끌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옷을 잘라내는 방법 이외의 방법이 없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하면 생활 필수품이 하나 줄기 때문에.

마침내 그네의 스카트를 벗기고 페티코트의 단추를 끄르고 그네를 조심스럽게 끌어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발끈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매 하나가 담요로 호기심 많은 시선으로 부터 라첼 자매를 가렸습니다. 라첼은 스카트가 케티코트와 신발로부터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다듬어진 닭 다리의 형상”이었습니다. 그후 사람들은 쉽게 마차 바퀴에서 옷을 끌어냈고 라첼은 마차 포장 안에 혼자 들어가서 먼지를 털고 구겨진 부분을 손질하여 다시 그 옷을 입었습니다. 다시 마차를 따라 길을 걷게 되었을 때는 마차 바퀴에서 정확한 거리를 떨어져 걷는데 신경을 쏟았습니다.

낮에는 온 가족이 여러 처소에 흩어져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밤 시간을 다같이 즐겼습니다. 밤이 오면 척후로 앞에 가던자, 연락책, 다리 놓는 사람, 길 닦는 사람, 가축 몰이, 사육사 등이 일을 놓고 천막으로 휴식을 찾아 몰려 옵니다. 천막들 가운데 모닥불이 황혼의 붉은 구름에 피어오르면 종을 울려 피곤한 일꾼들의 도착을 알립니다. 많은 여인들이 마중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불가에 모이면 어린 아이를 안은 채 앉아서 하루의 노고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시작한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없이는, 아니 그 기도를 하지 않고는 아무도 편안한 마음으로 참들 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첫별이 나오면 모두들 웃음과 이야기를 그치고 각각 흩어져 돌아 갑니다. 끝 찬송을 부르고 나면 수천이 소리를 모아 기도를 드리는데 언덕으로 내려 앉는 비누 방울 같은 정경이었습니다.”

이상은 토마스 엘. 케인의 기록입니다.

여행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대 계곡에 정착지를 구축한다는 실계를 놓고 여자들은 또 난관을 넘어야 했습니다. 1847년 10월에 계곡에 도착한 엠. 이사벨라 혼자 자매는 자기 자신과 이웃 여인들이 체험한 어려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한 통나무 집의 건축을 계속했다. 가족은 나와 남편, 아이들 넷이었고 우리가 문도 없고 창도 없고 마루도 없는 그 집으로 이사 올 때 함께 모셔온 로버트 홈스 부부다.”

그네는 가구라고는 의자밖에 없던 때에 필요한 가구를 준비하던 과정과 통나무 벽에 구멍을 뚫어 나무를 수평으로 끼운 다음 다른 한쪽은 바닥에 세운 기둥에 고정시키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끈으로 엮어 침대를 만들고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선반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물건을 얹었습니다. 칼리코 커튼을 앞에 쳐서 흙 먼지를 막고 깔판을 의자 대신 테이블은 상자로 대신하여 지낸면서 가구를 장만한 재물을 구했습니다.

1848년 무서운 폭풍우가 몰려와 열흘이나 노효하는 바람에 부실하던 지붕은 파괴되었고 비가 안으로 들이

쳤습니다. 혼 형제는 마차 포장을 벗겨 지붕과 침대를 가리고 밤을 지냈습니다. 나니름 같은 것으로 식탁을 덮어야 했습니다. 요리를 하거나 다른 집안 일을 할 때에도 우산이나 그릇을 써야 했습니다. 비가 멈춘 후에도 집 안에서는 머칠을 두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뱀과 들쥐의 습격입니다. 뱀은 금방 놀라 달아나거나 퇴치되었지만 들쥐는 점점 극성을 더했습니다. 이놈들은 트렁크, 침대에 기어 오르는가 하면 걸어든 양복 소매 속에 까지 들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쥐덫이 발명되었는데 나무로 만든 것으로 끝에 기름을 발라두어 이것을 먹으려고 달려들기만 하면 중간에 나무가 튕겨져서 쥐를 물 속으로 몰아넣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이트 자매가 고양이로 이웃에 분양해준 다음에는 들쥐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모두 과도한 탓으로 그 고기를 요리하려 면오래 끓여야 했고 세고 릴리와 어린 아이들이 파먹는 파스넝 이외의 채소는 없었습니다.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빌리면 세고는 금방 요리했을 때는 좋지만 식으면 엉겨서 곤란하다고 합니다.

레노라 자매가 가진 채가 대 계곡내의 유일한 채였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채는 망사를 테에 맞추어 만든것으로서 누구든지 흰 비스킷을 만들려면 이채를 빌려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여인들은 여러 가지로 서로 도왔습니다. 이사벨라는 이웃 어떤 사람이 스킵 밀크에 붉은 연필 속과 유연을 넣어 만든 칠로 집을 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나머지 “체인트”를 얻어다가 문과 문설주를 칠했습니다.

개척자 여인들은 그들의 기발한 착상으로 생활 필수품의 보완물을 장만했습니다. 방적 면사를 그물로 썼고 밀가루와 돼지 기름이 범벅된 헝겊은 방을 밝히는 등으로, 재료는 비누를, 가지와 호박은 옥수수대로 당분을 만드는 축진제로 썼습니다.

첫해는 무척이나 바빴으며 재미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척자는 모두 폭도의 공포가 침범치 못하는 자유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정원을 가꾸었고 꽃과 수풀은 무성하여 주변을 아름답게 해주었습니다. 과목을 심고난 다음 해에는 제법 무용과 다른 활동을 할 만큼 시간이 났습니다.

나부로부터의 길은 멀고 험했으나 그 고난의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가정은 모두 자리를 잡고 과수에서 거둔 열매는 겨울을 위해 저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방문하는 자유스런 시간이 왔고 여인들은 또다시 분주해 손길을 놀려 가정을 꾸미고 가족에게 나눠 줄 행복과 평안을 장만했습니다. 여행은 참으로 이들에게 봉사와 신앙과 사랑의 성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이들 여류 개척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



사교의 경험을 허가한 것도 청년 상향회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멀리 떨어진 채 방관해야 할 사람이 하나도 있을수 없었다. 청년 상향회는 교회의 젊은 여자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보다 온전할 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들이 복음의 간증을 얻도록 해주었고 이로써 이들 젊은 이는 교회 지도자가 지시하는 교회의 요구와 필요에 기쁘게 응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되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인상깊은 청년 상향회의 장래에 대한 말씀을 남기셨다.

“여러분이 어린 소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의욕으로 감화시킨다면 여러분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복음의 표준 영문 151페이지)

이 약속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 졌습니다.

교회의 청소년들만이 청년 상향회로 인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을 주관한 교회 전체에도 촉랑할 수 없는 힘이 모아 졌다.

교회의 성인 여자를 위한 모임인 상호 부조회에서는 청년 상향회에 대하여 감사함을 빚지고 있다. 천진 난만하게 자라온 여자 아이들이 성인으로 도약하는 발전과 성장의 전환점에서는 필연적으로 변화에 수반하는 요구와 필요를 찾게 마련이다. 헤아릴 수없이 많은 어린 소녀가 청년 상향회의 훈련을 끝내면 곧 바로 목적과 헌신을 갖고 상호 부조회에 들어오게 된다. 이들이 상호 부조회에 들어올 때에는 성품이 품위를 갖추고 재능과 지도력을 갖추며 상호 부조회가 신권회의 보조 기구로서 일하는데 있어 그 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회에 대한 헌신의 정신을 갖추게 된다.

말일성도 여인은 교회에서 짊어져야 할 중요한 짐이 있다. 교회의 여인은 누구든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 오늘날 교회 내의 여성의 위치

벨 에스. 스패포드

상호부조회 총 회장

● 청년 상호 향상회 백주년이라는 자랑스러운 자리에서 오늘날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오직 주의 영감에 의한 지시로서만 본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어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본 조직을 이끌어 온 위대한 여성 지도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려니와 불철 주야 본 조직에 관리와 지시를 맡아 일한 신권 소유자의 영감에 대하여도 감사의념을 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결실을 대할 때 참으로 감당 못할 만큼의 기쁨과 만족을느껴야 할 것이다.

지난 백년을 통하여 청년 상향회는 수천 수만의 젊은 여인의 영혼을 붙들어 젊은이들에게 교회의 이념을 제시하고, 사고(思考)의 특권을 행사하게 하고, 표준을 형성하게 하며, 스스로의 몸가짐을 다듬게 해주었다. 또한 상향회는 젊은이의 개성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재능을 기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저들에게 풍요롭고 다양한

건설함에 있어 특히 여자로서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여인은 교회의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여자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한다. 여자는 또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의 사업에 가르치고 여러 경우에 필요한 경제적인 협조자가 되어 준다. 여자는 계보 사업을 돕고 신전에 가서는 죽은 자의 대리 의식을 이행한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사업도 증대하는 것이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여자를 칭찬하셨다.

“여자의 훌륭한 내조가 없었던들 교회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오.” (복음의 표준 영문 150페이지)

교회가 시작되던 날로부터 여인은 교회 행사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발휘했고 교회 회원 전체의 의사를 물어 일을 처리해야 할 때면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그 의사를 반영시켰다. 교회가 조직된 3개월 후인 1830년 7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존 휘트머에게 펜실바니아주 하모니에서 내려주신 계시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모든 일은 간절한 기도와 굳은 신앙으로써 교회 회원의 만장일치로 수행……” (교성 26: 2)

여기에 기록된 사상은 여자가 정치적인 권리 곧 참정권을 갖지 못했던 1830년대에는 띄어나 진보된 사상이다.

교회에서 여자의 힘을 보다 더 선용하자는 의견이 고조되자 나부의 자매들은 곧 대관장께 건의하여 여자들의 모임을 조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에는 여자들도 개별적으로 누구에게도 못지 않을만큼 일을 했지만 단체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직의 요청을 상신한 여자 대표 엘리자 알. 스노우가 다음과 같이 뜻깊은 예언자의 대답을 자매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 자매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가서 자매들께 전하십시오. 그대들의 간청은 주님께서 받아 들이셨오. … 나는 신권의 관리하에 신권의 체제에 따라 모임을 조직하겠오.”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 여자가 교회에 바치는 봉사도 나부 시절에 비하면 수천배가 늘어났다. 말일성도 여인으로서 만끽하는 축복, —여자가 개인으로 느끼는 축복보다는 큰—에 임하여 오늘날 우리 여인들이 드리는 바가 주님께 열납되지 않는다고 느껴야 할 것인가?

교회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영원한 계획에 있어서 여인이 접하는 근엄과 존경과 사명의 자리를 명하여 주셨다. 복음은 하나님 왕국에서의 승영과 구원은 모든 세상에 사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남녀의 구별없이 주어지며 다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법과 의식에 개개인이 얼마나 충실하게 복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비록 신권은 교회내의 남자에게만 주어지지만 그 가족의 모두가 신권의 특혜와 축복을 허가받는 것이다.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이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신권의 의식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기회를 허가 받는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은 누구나 신전의 문에 들어 갈 수 있다. 가장 높은 축복도 남녀가 연합한 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가 단독으로는 이러한 높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여인은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오 남자와 동등한 존재이다”(1943 6월호 상호 부조회 잡지 373페이지)

부르스 알. 메콩기 장로는 교리와 성약 131편 124절에 수록된 교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발언을 한 일이 있다.

“……남자가 혼자서는 이곳에서도 완전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이후에도 얻지 못한다. 여자가 남자의 곁에서 온전한 상태에서의 상속을 나누는 자로 동행한다. 승영이나 영원한 발전은 남자의 몫이며 아울러 여자의 몫이다.” (물론 교리 북그래프트사편 44페이지)

교회에 수많은 위대한 교리 가운데 가족 단위의 영원성만큼 여인에게 영광과 안위를 가져다 주는 교리가 없을 것

이다. 고 루벤 제이. 클라크 부대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일성도의 가정에서 말일성도 가족이 이행해야 할 세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첫째, 가정은 가족 전원에게 저들이 처음 떠나온 그 영광스러운 처소로 되돌아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은 영원토록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다.”

“둘째, 가정은 그 임무와 특권과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우리의 것이 이후의 어느 영원의 대열에 있을 권세와 기회와 존엄과 영광이 동등하도록 해야 하며 우리가 떠나왔고 이제는 돌아가야 할 그곳과 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가정생활을 합당하게 하여 아직 영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들이 건강한 육신과 의지를 소유한 다음, 그들이 첫번 지체에서 획득한 보상에 따라 둘째 지체로 옮겨오되 우리의 가정을 가장 의로운 가정, 가장 합당한 가족이 사는 곳, 약속의 가족, 축복의 기회가 주어진 가정으로 알고 오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 찾아오는 영에게 모든 의로움의 표준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어야 한다.” (1940년 12월 상호 부조회지 808페이지)

말일성도의 가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가정이 지극히 잘 정돈되어 있음에 놀라곤 한다. 이에 관하여 그랜트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 “주의 신전에서 이 세상에서와 영원을 함께 살기로 약속한 때로부터 비롯하는 축복과 약속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쟁취하지 못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말일성도 젊은이는, 화평과 행복과 덕과 사랑과 그밖에 모든 영속하는 삶의 보배로움의 바탕이 되는 성약의 조건에서 영원한 동반의 유대를 허가받는다.” (임푸르브먼트이라1936년 4월호 199페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남자는 머리되는 관리 역원이요, 가정의 부양자요, 여자는 그의 동반자, 내조자가 된다. 여인은 또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는 중에 여인은 여인의 위대한 사명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지고한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가정을 이루어 보호하고 보존하는 성스러운 여인의 작업에 사명은 그것이 어떤 특정 가정이라 하여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인은 또한 필요한 때는 가족의 안녕을 위한 확실한 기초를 쌓는다.

교회내의 여인의 위치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뜻으로 정의되었으며 수시로 변경되지 않는다. 불변하는 여인의 자리는 오늘이나 어제나 같았고 내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여인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위치와 본분을 이해한다면 가장 훌륭한 업적을 쌓게 될 것이며 영원한 축복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된 여인이야 말로 이 세상의 어느 여인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



## 관리 감독단이

## 젊은이에게

## 주는 말씀

존 에치. 반덴버그

# 문벌이란?

군에 입대하는 아들에게 현명한 그의 부친이 이렇게 권고했다. “아들아, 네가 이제 집을 떠나면 네가 너를 돌봐야 하느니라. 너 너의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 내 앞을 떠나면서 너는 네가 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나는 한 평생을 나의 이름이 욱되거나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려 노력했다. 너도 나처럼 해주기 바란다.”

경전에 보면 옛날에도 이와 비슷한 훈계를 한 현명한 아버지께 관한 기사가 있다. 니파이 백성의 위대한 환사 중의 한 사람인 힐라맨은 그의 아들 둘에게 조부의 이름인 리하이, 니파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들 두 젊은이가 선교사업에 전념하면서 저들은 그의 부친, 힐라맨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니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다.

“이는 저들의 부친 힐라맨이 저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음이라. 그 부친이 저들에게 전한 말은 이러하였더라.

보라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며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바라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예루살렘을 떠난 첫 번 조상들의 이름을 주었으니 너희가 너희 이름을 기억할 때에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조상을 기억할 때에 또한 조상들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며, 이를 기억할 때에 저들의 선하심이 어떻게 기록되어 전하여 졌는가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선을 행하여 마치 선조들에 관한 기사가 선하게 기록되며 이야기 된 바와 같이 너희의 선행도 그대로 기록되며 또한 전해지기를 바라노라.”(힐라맨5 : 5 - 7)

남녀를 막론하고 젊은이 모두가 존경해야 할 이름이 있

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웃에게 우리를 알린다. 이름은 또한 우리의 성분을 밝히므로 이 이름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선하게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역사의 고금을 통해서 이름은 늘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로마의 신흥기부터 젊은이가 성인식을 가질 때까지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었다. 특히 이들 젊은이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으며 젊은이의 개성이나 인품을 뜻하는 것으로 대개 정했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신앙이 독실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신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아브람의 경우도 그렇다. 그의 원래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으나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개명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공자”란 뜻의 이름이다.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여러사람의 갈채를 받을만한 공적을 쌓을 필요는 없다. 다만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 남들이 자기를 보고 선한 일을 하겠다는 의욕을 갖도록 해주면 될 것이다. 아주 작아 보이는 것들이 대개는 여러분

의 이름을 빛내 준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당시 약은 사람들이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일들을 이행하신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말씀하시기를, “—명예를 얻는 사람을 대개는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들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은 일찌기 그리스도를 성공한 인간이라고 평한 역사가를 보았는가”(행복한 인생 99페이지)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주신분에게 친절을 행하는 것같은, 간단한 일로 우리 이름에 명예를 더 할 수 있다. 기회를 등한히 하고 있다. 친구나 동료들 하고는 잘 어울리면서도 부모에게는 파렴치하고 우물하고 유치하게 대하는 사람이 많다. 가정에서 늘 명랑하고 가족과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가정에서 유쾌하며 자기의 삶과 직결되는 사람, 부모나 가족에 늘 친절 한 사람은 스스로의 이름을 더욱 존경받을 것으로 만든다.

우리는 불결한 것에 때문지 않도록 우리의 이름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결하고 탐욕적이고 불성실한 행동이나 언어로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가치를 재는 바로 미터가 될 것이다. 유다의 이름을 보라. 이사벨이나 히틀러의 이름을 보라 이러한 이름은 모두 악과 연결되어 있으나 예수, 모세, 링컨 등의 이름은 선과 의로움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자질과 성품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힐라맨이 그의 아들에게 권한 내용대로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이름을 빛낼 수 있다. “..... 선을 행하면 너희를 선하다고 이를 것이며 선한 것으로 기록”하리라는 내용의 말씀이다. ○



## 공과 계획

### 제 II 부

#### 렉스 디. 파인거

●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보면 대개 조직적인 계획을 세워 일하는 사람들이다. 지난 달에는 “공과 계획” 제 1부에서 여러분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소개했으며 아마도 여러분은 검토표가 늘 붙어 있음을 주목했을 것이다.

검토표는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쓸 수 있는 참고 자료로도 쓰인다. 이 검토표를 여러분이 주일학교 공과를 준비하는 곳에 잘 보이도록 붙여두도록 한다. 교재를 읽기 전에 검토표를 먼저 읽어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 검토표에 적힌 항목을 읽음으

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보다 효과적인 계획을 할 수 있게 되며 훌륭한 공과를 준비하면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공과를 가르친 다음에도 즉시 검토표를 조사하여 스스로의 교수 방법을 평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자기 평가 방법은 교수 방법을 향상시키는 첩경이 된다.

### 공과 계획의 검토표

#### (공과 준비 전)

공과를 준비하기 전, 또는 가르치기 전에 아래 표를 읽고 답하라.

- |  |       |       |
|--|-------|-------|
| 1. 이 공과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주요 개념(복음 원리)을 적었는가?     | 예     | 아니오   |
| 2. 분명하고 이해할 만한 공과 목적을 적었는가?                    | _____ | _____ |
| 3. 다음 사항은 준비하였는가?                              |       |       |
| 가. 공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나를 영적으로                       | _____ | _____ |
| 나. 이 공과를 가르칠 합당한 보조자료                          | _____ | _____ |
| 4. 학생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했는가?                          |       |       |
| 가. 전체적인 것.                                     | _____ | _____ |
| 나. 개인적인 것.                                     | _____ | _____ |
| 5. 공과의 내용과 학생의 실제 생활과의 관계 및 연결을 꾀하는 내용을 준비했는가? | _____ | _____ |
| 6. 반 학생이 배운 복음 원리를 토론할만한 내용을 준비했는가?            |       |       |
| 가. 자기들끼리                                       | _____ | _____ |
| 나. 나와 함께                                       | _____ | _____ |
| 7. 학생들이 배운 복음 원리를 응용하도록 준비했는가?                 |       |       |
| 가. 반에서   | _____ | _____ |
| 나. 공과가 끝난 다음에                                  | _____ | _____ |
| 8. 지명 발표도 계획했는가?                               | _____ | _____ |
| 9. 공과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모두를 준비했는가?                    | _____ | _____ |

〈공과를 가르치고 나서〉

1. 자기 평가를 위해서 검토표를 사용했는가? \_\_\_\_\_
2. 방문 관리 역원과 함께 공과 진행의 평가를 했는가? \_\_\_\_\_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Robert Cundick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봉독

장년 주일학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4절)

유년 주일학교

“선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요, 악한 것은 모두 악마에게서라.” (엘마서 5장 40절)

10월 주일학교 성구 암송

기초 교리반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고린도 전서 15장 29절)

야고보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7장 3절)





# 상향회로 가자

●상향회는 젊은 패기와 품위가 융해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적이고 오락적인 순서를 낳는 곳이다. 지난번 연차 대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본 상향회에 약 300,000명의 청년 회원과 300,000명의 청년 회원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창립 백주년을 맞는 상향회의 기본 활동 요강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을 설정하였었다. 상향회에서 뼈가 자란 성인 회원과 현재 전 세계의 젊은 회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본 요강의 내용이 주로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남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제38차 유타 주의회는 오늘날의 젊은이와 지난 백년동안 젊은이에게 전설적이고 훌륭한 영향력을 끼쳐준 청년 상호 향상회의 업적을 치하하며 유타 주의회는 다음과 같이 그 업적을 기술했다.

“본 회의는 약 백년 전 1869년 11월 28일 유타 지역 관리인 브리감 영이 최초로 라이온 저택에 그의 딸들은 모아 절제회를 조직한 것이고 후에 본 회의는 청년 상향회로 개명되었으며 훌륭하지 못하고 가치없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향상할 것을 권고하였음.”

“본 회의는 본 이념을 100년간 지켜오면서 현재는 유타주는 물론 미국 전토와 많은 외국에 조직되었음.

“본 회의는 작년 기록이 보여주는 다음 사항을 바탕으로 유타 가정의 젊은 여자들의 건전한 생활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현재에도 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할 것이다.

상향회가 주관한 무도회는 6,000

22,000 소녀가 상향회의 웅변, 토론, 독서 과정을 통하여 보다 확실한 자기 발표 능력을 기름.

14,000명은 유타의 청년 상향회 캠프에 참여하여 생활과 주변 개발을 위하여 준비를 쌓았음.

24,000명이 상향회의 연극과 로드 쇼에 참석함.

이밖에도 수를 헤아리지 할만큼 많은 젊은이가 상향회 주최의 소프트 볼, 농구, 배구, 등의 활동을 통하여 더욱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고 사교의 능력을 길렀음.

“본 회의는 금번 백 주년을 맞았음.

이에 제39차 유타 주의회를 결성하면서 청년 상호향상회의 과거의 교사와 역원 및 현재의 교사와 역원 제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우리 나라의 모든 젊은이와 상향회에 관련된 전체가 본 회의의 이념에 좇아 보다 훌륭한 여성, 가정, 성품, 인격, 높은 이념을 길러 금번 1969년이 대망의 백주년으로 채워지기를 앙망함”

이곳에 수록된 내용은 단순한 형식을 위한 문자가 아니며 거부될 수 없는 산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그 훌륭한 예를 전 세계의 청년, 청년상향회 기록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겠으나 그중 2개만을 뽑아 보기로 한다. 유타주 쏘트레이크시의 엔사인 스테이크 엔사인 제 3 와드에서 3막극 연극 “기적을 이루는 자”를 가졌는데 각본 무대 연출 배역을 모두 19세 미만의 젊은이가 한 것으로 막이 열려 다시 내릴 때까지 참으로 훌륭한 솜씨를 감탄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기적을 이루는 자”는 생소한 극은 아니다. 본 극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연극이나 영화로 시도한 바 있다. 미국 출신인 헬렌 켈러의 일생을 주제로 한 본 극은 그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등의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는 대목과 인내와 사랑의 동반자 앤 숄비안이 기적을 이루어 헬렌이 최초로 “물”이란 말을 하게되는 대목을 그린 것이다.

막이 내리자 장내가 떠날듯한 박수갈채 대신 무거

운 고요가 장내를 잠시 위압했고 청중은 조용히 일어나 함께 최상의 찬사를 보냈다.

모두 상향회의 청소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감독은 19세의 흥안 소년으로 연극 상연 2주후에 부름을 받았다. 앤 숄비안의 역은 17세의 소녀가 맡았다. 무대 장치도 훌륭했다. 상연이 끝난후 첫 금식 간증회의 때 엔사인 제 3 와드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상향회 배역진은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이루었으나 그중에도 제일 큰 것은 와드 전원을 단합시킨 일입니다”

봄이되어 절기가 초순으로 접어들면 교회의 지방부, 지부, 스테이크, 지부별 무도회가 크게 열린다. 그중에는 전통적인 황록회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행사를 방문하고 돌아온 어떤 관리역원은 이렇게 극구 칭찬했다.

“훌륭한 젊은이가 마음을 쏟아 준비한 최상의 잔치였노라”고.

장내 준비, 장식 정리, 간소하고 검소한 아름다움은 표현하기 힘들만큼 우아하다. 일본식 특색의 무도회를 연 일이 있었다. 작은 내를 만들어 작은 다리를 만들고 천장은 동양식으로 했으며 간이 음식을 나르는 소녀는 영롱한 무늬의 긴소매 옷을 입었다.

무도 위원회는 스칸디나비아, 슬라비아, 영국, 아일랜드, 스코트랜드, 하와이 사모아, 대한민국, 남미 제국등지에서 열린 무도회의 기록으로 분주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상향회 예선은 제한되어 있으나 젊은이는 저들의 창의력과 헌신으로 놀라운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교회와 상향회 당국은 젊은이의 업적에 그리고 상향회에 참여하여 맺어준 소담한 결실에 심심한 사의를 전한다. ○



무릇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되느니라. 물몬서 8장 22절



# 교사가 되라

선교부장 서 현보

● 여러 형제 자매들께 멧세지를 전하면서 여러 가지로 영적인 지도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보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교사로서 일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는 훌륭한 교사를 필요로 하며 우리에게 훌륭한 교사가 없다면 회원의 훌륭한 집회 참석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교재를 준비해 줘야지만 과연 이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주일학교 본부에서는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책자를 냈습니다. 아마 멀지 않아서 여러분에게도 번역된 책이 도착되리라 믿습니다. 본서는 교사에게 교사의 임무를 숙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서에 소개되는 우리를 보다 훌륭한 교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제언을 이제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르친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중요합니다. 교사란 성스러운 부름이며 기회가 되는 동시에 축복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선생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교사의 일을 했습니까? 구세주께서 훌륭한 교사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한 열 가지 사항을 생각해 봅시다.

1.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참된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2. 인류를 구하고 인류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자신의 사명에 불타는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3. 인간과 인간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 하였고 또 이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셨습니다.
4. 부단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생도였습니다.
5.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았고 이를 높이 치켜 들었습니다.
6. 언어를 자유로히 구사하여 여러 등급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7. 창의적인 노력으로 늘 산 교훈을 주셨습니다.
8. 무리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인도 하셨습니다.
9. 가르침으로 백성들에게 착하도록 감화시키셨습니다.
10. 용감하고 꾸준히 생활하여 그의 신앙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열가지를 우리가 쟁취해야 할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또 남을 가르칠때 늘 마음 속에 간직해야겠습니다. 훌륭한 교사의 자질을 칠판에 수없이 열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 중요한 것은, 교사는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일을 겁내지 않고 친절해야 하며, 부드럽려야 하며, 이해심을 가져야 하며, 공평해야 하며, 겸손해야 하며, 헌신적인 열의를 가져야 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최선의 노력으로 맡겨진 임무를 다 하겠다는 자세를 갖도록 감화시

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를 물으시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몇가지 저 나름으로의 의견을 밝혀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야 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방편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축복을 분명히 얻는 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교사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합당한 생활을 하여 여러분이 가르치는 모든 사람 앞에 모범이 되십시오. 때때로 교사의 살아가는 모습이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더 큰 교훈이 됩니다. 스스로 간증을 기르도록 노력하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의 간증도 함께 발전합니다. 훌륭한 교수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교사 보조 재료를 잘 다루는 방법도 연구해야 합니다. 기도예 준비를 더하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하는 힘을 얻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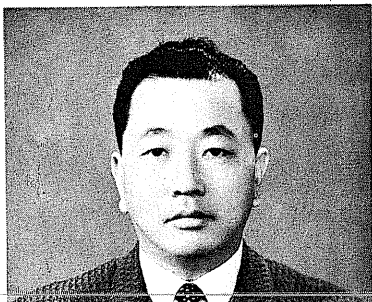
그다음엔 책임감입니다. 한번은 교실에 들어갔는데 교사는 나오지도 않았고 또 그가 울지 안울지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해는 매일 아침 동쪽에서 뜨며 언제나 변함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우리는 비록 태양이 구름에 가린 때라도 해가 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태양이 가져 올 따사로운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일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교사가 되시렵니까? 경전의 말씀에, “너희와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성88: 119) 나는 마땅히 교사는 주의 가르침을 계획하고 준비할 것을 주가 바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낀 사실인데 반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보다 더 공과에 참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학생들은 늘 훌륭한 공과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려 하기 때문에 공과를 잘 준비하기만 하면 공과에 직접 참여하는 자의 수도 늘어 날 것입니다. 토론을 권장하고 질문을 하고 참고 자료 연구를 맡기고 숙제를 내주고 경전을 읽게 함으로서 공과 참여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인 여러분이 이 모두를 다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특히 교사로서 복음에 관한 많은 것을 주어야 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부장은 그의 보좌와 보조 조직 역원을 지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교사입니다. 교사가 교사의 본분을 다한다면 옛날 니파이 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 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응답 되지 않는 기도

남부지방부장 배영천

●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가복음 14장 34—36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린도후서 12장 7-10절)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기도하라고 여러번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간구하라. 나는 대답할 것이 또한 너희들이 모르는 위대한 것과 비밀에 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보일지이다.”(예레미야 33장 3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 복음 11장 24절—마태 21장 22절, 18장 19절, 누가 11장 9절, 야고보 5장 16절, 요한 13장 22절, 요한 14장 13절) 이 외에도 허다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권고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기도는 전부 응답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더 연구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몇가지를 예거하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나 내보에서 죽었으며, 또한 바울은 자기의 전도사업을 방해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제거되기를 세번이나 기도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욥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욥 30장 20절)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비통한 계획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 이와같은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간구함이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몇가지 예거하여 보겠습니다.

## 1. 기도에 관한 이해가 결핍하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최대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무엇이 우리를 위한 제일 좋

은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도에 응하시지 않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까닭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며 사랑에 넘쳐 계십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간구하여야 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베다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오자 예수님이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셨습니다. 대답하되 “이 두 아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당신의 우편 또한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들은 무엇을 간구할지 모르는도다. 내가 들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대답하되 “그러하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들은 나의 잔을 들지어다. 그러나 나의 좌우에 앉음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들의 의사로서 아버지의 의사를 대치하려함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만을 키우는 사람이 될까 염려하는 바입니다.

## 2. 우리들은 일을 기도로서 대치하고 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기도로서 모든 일이 성취된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장애가 제거되고 모든 문제가 노력없이 해결되며, 그리고 주님의 존재가 우리들의 명령 또는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종의 존재라면 이 세상은 어찌되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생활은 극히 평범하고 무익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지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한없는 부정을 자식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세가지 예거한다면 첫째 일하는 것, 둘째 생각하는 것, 셋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조 시편 139편 23—24절)

## 3. 우리들은 기원하는 매사에 대하여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기도하므로써 자기의 열심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들은 진리가 만민에게 전하여 지도록 기도하여야 하며 또한 장의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기도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리들의 관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 같이 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보편적으로 다음 두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응답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기원하는 경우의 변화 또 하나는 이와같은 경우를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힘을 주어짐으로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

# 진리의 말씀

## 무슨 일이든지 하자

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엘. 이반스

“인생이란” 벤자민 디스레일리의 말입니다. “기복의 연속이니—곧 몹시 분주하고 어지럽도록 어수선한 기복의 연속입니다.” 뒷부분은 매튜 아놀드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두 빛, 임무, 해야 할 산 같은 일, 근심, 걱정, 불안 등으로 막중한 중압감을 느끼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슬픔이 너무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하며 이행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며 말할 수 없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일을 수습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일을 매듭짓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차분하게 처리하는 일도 없다고 느끼면서 그토록 복잡한 일을 정리할 수 있을런지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처리에 대하여 “한번에 하나씩”이라고 한 지극히 냉정한 제의를 듣고 싶습니다. “산을 먼 곳에서 바라보면 측량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높아 보이지만 반드시 정복될 뿐만 아니라 정복의 시작은 위로 향해 딛는 첫발에서 비롯한다. 바로 이 순간에 산은 점점 낮아지며 먼 곳에서는 것처럼 가파르게 보이던 절벽도 가까이 이를수록 평평하게 들어나는 법이다.” 라고한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에 하나씩”이라는 태도로 임하기만 한다면 생애의 모든 일은 쉽사리 처리될 것입니다. 첫발—시작; 어떠한 일에 대한 작업, 일을 이루기 위한 시도—은 우리의 목적지를 제시해 주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함을 확신하게 해 줍니다. 옛말에 “토끼 두 마리를 좇으면 둘 다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꺼번에 여러가지 일을 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하고 가능한가를 결정해야 하며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도구로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시작하여 끊임없이 일을 계속 한다면 중압감, 근심, 의혹, 낙담 등은 사라지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 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지금 무엇인가 하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하므로써 마음은 가벼워지고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플라톤은, “시작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